

# 전주시 동·북부권 연결 시내버스 운행

103번 노선 신설… 동산동에서 송천동까지 환승 없이 5~10분이면 도착

송천동과 동산동, 팔복동, 우아동, 이중지구 등 전주시 동부권과 북부권을 한 번에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60년만에 처음 운행된다.

이는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노선 개편을 통해 다음달 20일부터는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6개축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송천동~동산역~팔복동~추천대교~송천삼거리~송천동농수산시장~차량등록사업소~전주역~기린초교~전주시양묘장으로 이어지는 103번 노선이 신설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송천동에 거주하는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동산동에서 송천동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버스 이용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동산동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송천동 농수산시장까지 이동하려면 덕진공원에서 하차한 후 기린대로를 건너 맷은편 승강장에서 환승하는 관계로 약 30~40분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103번 노선이 신설되면서 동산동우체국에서 동부대로를 경유해 농수산시장으로 곧바로 연결돼 환승 없이 5~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직통노선이 생기면서 그간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버스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이용해 송천동에 거주하는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무소방원 명예로운 전역식

전주완산소방서는 11일 완산소방서 앞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제46기 의무소방원 공정배·변창준·이민형 등 3명에 대한 전역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인터넷을 잘 이용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상세한 노선도가 실린 안내책자와 노선안내 주요내용 및 대체노선 안내 전단지를 등 주민센터에 배포한 계획이다.

나아가 이달 중순부터는 총 40여 페이지 분량의 노선안내도 소책자 15만부를 등 주민센터에 비치해 각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 개편 시행 열흘 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안내도를 부착할 예정이다.

완주군에서도 시행 전까지 지간선 제 우선시행지역인 삼례·봉동, 이를 중심으로 미들밸 노선도 환승체계 등 이용방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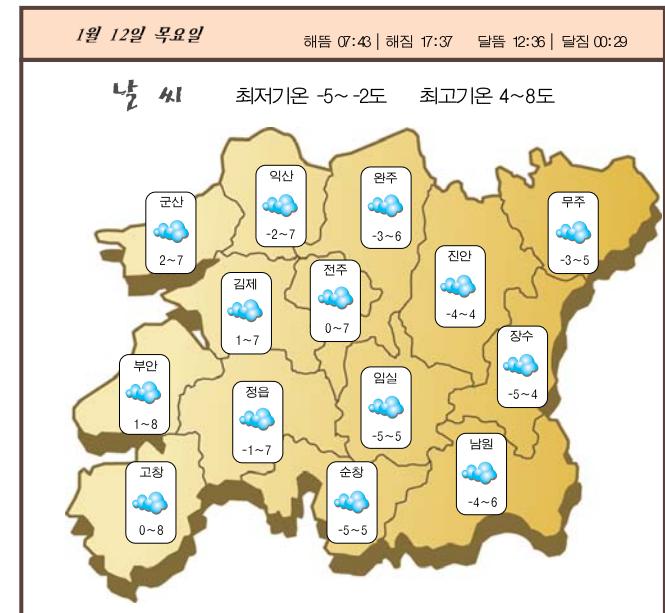
전주시 시민교통부분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편,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그간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됐던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이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전주 신도심 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신도심 개발에 따른 학교이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학교이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안한 토론회 및 공론조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수평공감 토론회 및 전주시민 공론조사를 민관협력위원회가 총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회의는 1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원도심학교 활성화계획 발표

### 교육환경개선 159억원 지원·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원도심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59억원을 지원하고 원도심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원도심학교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주 군산·익산 3개시의 초등 36개 학교, 중 11개 학교 등 총 47개 학교를 원도심 학교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학교 중 지난해 31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총 129억원을 지원

한데 이어 올해에도 41개 학교에 15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빙여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주 군산·익산 3개시 원도심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2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올해는 전주 28명, 군산과 익산 26명으로 감축 할 계획이다.

원도심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28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원도심 학교 지정기간을 총 3년

으로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원도심 학교 30개 학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12개 학교를 연계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억7,000만원을 지원해 25개 학교에서 진행한 다양한 체험·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이어서 진행한다.

1교당 1,800만원~4,8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마을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노력도 지속된다.

한편 도교육청이 전주 군산·익산 3개시의 36개 원도심 소재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간 2012년 1만 2,391명에서 지난해 9,885명으로 학생 수가 20.6% 감소했다. 또한 원도심 11개 중학교도 5년전에 비해 학생수가 38.1%(2012년 4,735명→2016년 2,929명) 기량 줄었다.

다문화 학생과 저소득층이 높아지는 등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귀국보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오후 본청 2층 회의실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기술·기술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16년 특성화고·マイ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귀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경과보고,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수기 발표와 학생들의 성과 공유의 시간으로 운영됐다.

서백호(이리공고 3학년)군은 “다시 뜻을 나의 미지막 10대를 호주에서 보낼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했다.”라며 “내년에 올 후배들을 위해 영어공부와 특히 전공과 연관 있는 전문 용어들은 꼭 알아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해은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른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심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